

‘물 잠기고 흙 쏟아지고’ 광주·전남 호우 피해 속출

영광에 시간당 최고 66.4mm 기록적 폭우 쏟아져
주택·도로·농지 침수에 토사 유실도 잇따라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고 6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관련기사 8면)
29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광주 동구 용산동 한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렸다. 다행히 인근에 주택·상가가 없어 큰 피해는 없었다.
북구 망월·석곡·화암동 일대에서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남구 주월동·북구 풍향동에서는 전신주가 넘어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로 침수 피해도 곳곳에 발생, 27곳에서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
또 8개 도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양동 북개상가 하부 주차장 ▲광천1교 ▲광천2교 ▲광암교 하부도로 ▲광산구 인곡 연계길 소교량 세월교 ▲광주마이스터고교 입구 철길 ▲입곡 벽파 삼거리 ▲천등보교 등이다.

이날 오후 1시20분을 기해 황룡강 장륙교 인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무등산국립공원 역시 오전 9시부터 입산이 전면 통제됐다.
이 밖에도 가로수 쓰러짐·배수 불량 등도 4건 접수돼 행정·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마쳤다.
전남에서도 주택·도로·농경지 침수와 제방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속출했다.
영광에서는 주택 10채가 침수 피해를 입어 이재민 2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다. 교회·상가·축사 등도 일부 침수됐다. 또 농경지 363ha가 물에 잠겼으며, 소규모 하천 제방 6곳의 토사 일부가 유실됐다.
국도·지방도·농어촌도로 등 도로 8곳이 일시적으로 노면 위에 물이 고여, 긴급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성에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삼계면 한

야산에서 토사 섞인 물이 인근 주택으로 흘러내렸다. 가로수 쓰러짐·침수 등 피해도 3건 접수됐다.
화순에서는 백야면 송단리 한 야산에서 토사·수목이 도로로 흘러내려 응급 복구 작업을 마친 상태다.
광주시·전남도는 구체적인 호우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날부터 누적 강수량은 영광 191.5mm, 장성 상무대 167.5mm, 광주 111.3mm, 곡성 석곡 98mm, 함평 96.5mm, 화순 북면 93.5mm, 신안 임자도 78mm, 순천 황전 67mm 등이다.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영광이 66.4mm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조선대) 53.5mm, 곡성(석곡) 48.5mm, 장성(상무대) 42.5mm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광주와 순천·광양·화순·영광·함평·장성·구례·곡성·담양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한때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발령됐던 호우경보는 주의보로 완화됐다.

정승호 기자



흙탕물 가득 찬 광주천

광주·전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29일 광주 동구 소태동 주변 광주천변이 흙탕물로 가득 찬 모습이다. (사진=독자 제공)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4일 연장... ‘휴가철 고비’

최근 5일 간 지역감염 안정세 유지
방역 시스템 통제 가능시 1단계 완화

광주지역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구축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8월 2일까지 연장한다.
광주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주말인 8월2일까지 4일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말까지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유지될 경우 8월3일부터 방역수칙을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광주의 지역감염은 최근 5일 동안 1명에 그쳐 외견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날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일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자가격리자가 1000여명에 달하고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31명, 전체 확진자의 18.2%)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감염 확산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 최근 한 달 사이 확진자 44%가 무증상자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했다.
대책위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고 주말까지 겹쳐 긴장감을 갖고 방역망의 고삐를 조일 필요성에 공감했다.
광주시는 지난 달 27일부터 지역감염 2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지난 2일부터 2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고, 한 차례 연장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행사금지 조치 등 고강도 방역망을 구축했다.

이 기간 동안 금양오피스텔과 일곡중앙교회, 광주고시학원 등 10개가 넘는 감염연결고리를 통해 확진자 171명(해외입국 9명 포함)이 발생했고, 이 중 70명이 아직 입원 치료 중이다.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4명이다.
대부분의 확진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확인했으나, 161번, 168번, 192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7일 이상 지역감염 확진자가 없거나 8월2일까지 현재와 같은 안정세가 유지되고 방역관리 시스템 내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8월3일부터 방역대응체계를 1단계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방역체계가 완화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이 더욱 엄격한 방역수칙이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과 밀접접촉 금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전남도,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47.3% ‘전국 최고’

108개 위원회 중 102개 40% 이상
전남도는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이행점검 결과, 4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촉직 여성참여율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점검 당시 위촉을 진행 중인 4개 위원회를 제외한 전남도 소관 위원회 108개 중 102개가 여성위원 비율 40%이상으로 전체 위원회의 94.4%를 달성했다.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과 관련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 참여로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특정 성별이

60%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달성된 6개 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건축사정책위원회, 전남도 섬가꾸기 자문위원회, 조선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자치분권협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여성 전문인력 희소분야다. 이중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여성위원 43.8% 위촉을 완료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향상을 위해 위원회 임기 만료 1개월 전 소관 부서에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토록 안내했으며, 위원회에 적합한 전문 여성인력을 발굴해 지원해 왔다.

김정환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